

민주 '62만표' 수도권 대회전 시작 명 "압도적 지지를" vs 낙 "대장동 아직"

이재명측 "판도는 이미 기울었다" 이낙연측 "결선 가능성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경선 마지막 지역인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막판 경쟁에 돌입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 경선까지 투표 결과 표차가 약 20만 표로 더 벌어진 만큼 결선 없는 본선 직행에 쐬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결선투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번 주말 수도권 지역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를 남겨두고 있다. 5일부터는 경기 지역 대의원·관리당원 투표가, 6일에는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서울 지역 대의원·관리당원 투표가 각각 시작된다. 경기·서울 대의원과 관리당원, 3차 국민 선거인단은 총 62만 명에 달한다.

이재명 캠프는 4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향해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 최종 승리를 별렀다. 이미 판도가 기울었다고 보면서 자측 분위

기를 자제하며 원팀 정신과 본선에서의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에서의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준 독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괄본부장인 조경식 의원은 "경기와 서울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대선 승리 기반을 든든히 구축하겠다"며 "용광로 원팀을 만들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변수로 거론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가짜뉴스로 총공세 중이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토건 세력과 맞설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봐주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지사도 이날 서울지역 5대 공약으로 서울 1호선·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발표하며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상 결선투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다. 경기와 서울 등 남은 경선 지역이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분위기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해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캠프 대변인인 배재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결선제도가 있으니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선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도 연루돼있고 여론에서도 귀책 사유가 없는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며 "끝까지 의연하고 결연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남은 일주일 동안 흔들림 없이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이 지사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면서 캠프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 캠프는 전날 회의를 열어 경선 흐름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캠프 입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은 본선에서도 민주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야할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외교·안보·통일분야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군수 민주당이 되찾아야...5명 예비경선

6일 TV 토론회, 23일 2명 압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지방선거 고흥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마감한 고흥군수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모두 5명이 예비경선에 참여했다. 공영민(67) 전 제주발전연구원장, 김학영(69) 전 고흥경찰서장, 박진권(49) 전남도의원, 송영종(65) 전 순천 부시장, 장

세선(68) 전 고흥군의회원이다.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5시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예비경선 후보자 TV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에 뛰어들다.

예비경선일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관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 여론조사를 합산하고 신인에게는 10% 가점을 부여해 3명을 컷오프 한다. 압축된 2명의 후보는 내년 당 경선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로 경선에 합류하

는 지원자들과 경쟁해 본 선거에 나설 당의 최종 후보를 뽑게 된다.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보다 3개월 뒤인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이 조기에 시작된 것은 경선 과열을 막고 민주당이 고흥군수 자리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데 입지자들의 뜻이 모아지면서 비롯됐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생당으로 당선된 송귀근 군수가 내년에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현직 단체장을 누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절반 '무용지물'

이형석 국회의원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콜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이어서 운영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



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사·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사·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30대 건강검진 수검률 5년간 22% 하락

김원이 국회의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5년간 2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 77.8%, 2017년 78.6%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6.6%p 하락하면서 67.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치다.

2016년 당시 20대 87.9%, 30대 82.9%, 40대 77.2%, 50대 76.9%, 60대 79.8%를 기록하던 연령대별 수검률은 2020년 현재 20대 58.1%, 30대



67.4%, 40대 71.1%, 50대 71.6%, 60대 72.6%를 기록해 전체 1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건강검진에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2019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20~30대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폭 늘렸지만, 수검률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도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건강검진 수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수입신고제 도입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공청회를 앞두고 반려동물의 수입지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수입지 확인을 위한 동물수입신고제를 주문했다.

국내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어떠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이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 접수됐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약 35만 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 2600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등간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를 클 것으로 우려된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수입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장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 가격 25,000원
편백검침 스폰지 부착 >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상가매매 (상무지구)

-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